

나를 기다리는 하느님

오늘 대림1주일을 시작하면서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례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모든 교우분들이 끝나는 2018년을 여러 가지 아쉬움으로 18(?), 18(?)하며 한 해를 보내려 하신다면 새로 맞이하게 될 2019년은 더 친절하고 싶고(19), 더 배려 하고 싶고(19), 더 용서하고 싶고(19), 더 사랑하고 싶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대림 시기의 기다림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몰랐기에, 삶의 지침이 되고 구원을 위한 참 스승으로서의 메시아, 곧 하느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기다림은 하느님의 육화로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인이 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기다림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다림처럼 마냥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 기다림은 아닐까?’

얼마 전 방송을 통해 이런 생각이 들도록 도와준 시 한 편을 소개해 봅니다.

강을 건너느라

지하철이 지상으로 올라섰을 때

말없이 앉아 있던 아줌마 하나가

동행의 옆구리를 찌르며 말한다

눈 온다

옆자리의 노인이 반쯤 감은 눈으로 앉아 있던 손자를 흔들며

손가락 마디 하나가 없는 손으로

차창 밖을 가리킨다

눈 온다

시무룩한 표정으로 서 있던 젊은 남녀가

얼굴을 마주 본다

눈 온다

만화책을 읽고 앉았던 빨간 머리 계집애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든다

눈 온다

한강에 눈이 내린다

지하철에 눈이 내린다

지하철이 가끔씩 지상으로 올라서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지하철에 눈이 내린다/ 윤제림)

지하로만 다니던 지하철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변화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변화가 하느님과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음을 이 시는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내 남편이 바뀌지 않는다고, 내 아내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그들을 위해 조금 더 받아주려고, 조금 더 배려하려고, 조금 더 인내하려고, 조금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변화가 바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두 번째 기다림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나에게서 분명 작은 변화라도 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 의탁하며 가끔 지상으로 올라오는 변화를 통해 주위의 어둠을 밝히는 대림 시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임해원 안토니오 신부 | 병원사목(마창지역)

주일 진례

2~3면 교구장 사목교서

제1독서

예레 33,14-16

화답송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제2독서

1테살 3,12-4,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음

루카 21,25-28,34-36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랴.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사랑하는 교우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동료 성직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빕니다.

무엇보다도 반갑고 기쁜 일은 갈라졌던 우리 민족이 ‘평화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 있겠지만, 절망과 죽음 속에서도 부활의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우리이기에 이 평화의 길이 꼭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길이 결코 만만치 않아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나는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고 갑니다. 내 평화를 당신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요한 14,27 : 공동번

역 1971년판)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때, 로마의 평화(Pax Romana)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런 평화야말로 로마군대의 무력에 의해 유지된 것이었으니 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세상이 주는 평화’일 따름입니다. 그에 비해 당신께서 남겨주시고자 했던 평화는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써 아버지로부터 얻 어지는 평화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담뿍 받은 아드님은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하여 당신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요한 20,19)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약속하신 바로 그 평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된 것입니다. 평화 자체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영을 불어 넣어주시며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평화의 길,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하느님의 사랑이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구체적 내용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이렇게 우리네 삶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인 서로 용서하고 서로 얼싸안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남과 북이 서로 평화의 길로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과 오랜 군사대치로 수 없이 흘린 동족상잔의 피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문제겠지만, 이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우리 사회 안에 형성된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굳을 대로 굳어져 버린 갈라진 마음을 화해와 용서로 모으는 일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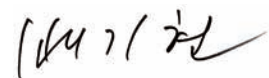
입니다. 원하옵건대, 우리 모두가 하느님 사랑의 은혜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 용서의 기쁨 속에서 참 평화를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빕니다. 저 자신 또한 주교라는 직분이 여러분에게 엎드려 봉사하기 위해서 있을 뿐, 한 인간으로서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고 보니 밀이 아니라 가라지 같은 용서받아야 할 내 속 모습 때문에 하느님 앞에 엎드려 빌고 또 빌게 됩니다. 제발 거짓 없이 살게 해달라고, 위선자가 되지 않게 지켜주시라고 말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천주교 마산교구 신자들은 더 이상 손가락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길 바라는 바로 그런 사람 곧 용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마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나라의 미래는 마지막 희망인 우리 때문에 더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그 곁에 서 계셨던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서로 용서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남은 고통을 기꺼이 지고 갑시다. 참 좋아하는 시편 한 구절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늘 평안하소서.

자비와 충성이 서로 마주 만나고
정義와 평화가 함께 입 맞추리라
땅에서 충성이 움터 나오면
정義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주께서 행복을 내려주시면
우리 땅은 열매를 맺어주리라.
정義가 당신 앞을 걸어나가면
구원은 그 걸음을 따라가리라.

(시편 85,11-14 : 최민순 신부 역)

2019년을 준비하는 대림절에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연예인 병? 성직자 병? 둘”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한 때 인터넷에 떠돌던 이야기입니다. 웃자고 하는 글인데 죽자고 덤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유머는 유머일 뿐입니다. <조폭과 신부님의 공통점 : 1. 검은 옷을 즐겨 입는다. 2. 아무나 보고 반말을 한다. 3. 관리하는 ‘나와바리’(구역)가 있다. 4. 밥을 먹고 밥값을 안낸다. 5. 받는 법만 알지 주는 법을 모른다.> 신부님! 화내지 마십시오. 그냥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어낸 사람이 마산교구 신자는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산교구에서 이런 신부님을 한 분도 뵈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어떤 무지몽매한 교구 신자가 만들어낸 농담인가 봅니다).

그런데 농담이긴 하지만 되짚어 볼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검은 옷을 즐겨 입는다. : 제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러시아 정교회 신부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러시아 정교회 신부님인 줄을 알았느냐 하면, 젊은 분이 수염을 진지하게 기르고 검은 수단을 입고 호텔 로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부님들은 검은 양복에 성직자 복(플러지 셔츠)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로 알아보고는 다가서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도 낯선 북한 땅에서, 너무나 낯선 러시아 정교회 신부님을 만나서, 한눈에 서로 알아보고 인사를 하다니! 검은 옷이 만국 공통의 사제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사제임이 뿌듯했습니다. 웬만하면 신부는 검은 옷을 입고 살아야겠습니다. 검은색은 죽음이고, 신부의 검은 옷은 세상에서 죽고 하느님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칠원본당 본당의 날 기념 성지순례



소식

칠원본당(주임 : 배진구 베드로 신부)은 11월 4일 전주교구 일대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순례는 본당 설정 40주년 기념 및 연차총친목회를 겸해서 진행되었으며, 주임 신부를 비롯한 본당 신자 142명이 참석하여 천호성지와 전동성당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칠원본당은 본당 설정 40주년을 맞아 2019년 11월 3일 본당의 날까지 기도문과 묵주기도 40십만 단 봉헌을 목표로 본당 모든 신자가 함께 기도하기로 하였다.

● 창원지구 중·고등부 연합 체육대회



창원지구 중·고등부(담당 : 김태호 스테파노 신부) 주일학교는 11월 18일 창원 성주초등학교에서 연합 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중·고등부 학생 250여명이 참석하여 축구, 농구, 피구, 발야구로 진행되었다. 블루, 레드, 그린, 옐로우 네 개의 팀으로 나뉘어서 이루어졌으며, 레드팀(중동본당, 명서동본당, 팔용동본당)이 우승하였다.

● 순교자의 딸 유섬이 리뉴renew 공연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 한일문 하상 바오로)는 11월 17일 MBC 경남홀에서 “창작뮤지컬 유섬이” 리뉴 공연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연은 2017년 제작된 공연을 새로이 구성하여 진행되었으며, 창원시장을 비롯한 기관장들과 복지단체, 수도회, 예비 신자들을 초대하여 이루어졌다. 이날 공연은 총 2,000여명이 관람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참 좋은 당신

김연희 크리스티나 • 시인



퇴직 후 교회 봉사에 전념하며 틈틈이 서예를 배우는 선배로부터 책 한 권과 함께 동봉된 마음을 받았다. 궁서체 붓글씨는 세로로 한 줄 ‘참 좋은 당신’이다. 순식간에 부끄러움이 확 밀려왔다. 그야말로 참 좋으신 주님의 그늘 아래서 나는 누구에게나 ‘참 좋은 당신’인가? 정갈한 글씨가 내 가슴으로 파고든다. 선배님이야말로 ‘참 좋은 당신’인데……

가끔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해 받으면 점점 게을러지는 내 영혼을 다시금 깨워 세우곤 했다. 남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쉽사리 겪지 않는 큰 고통을 당하고 또 겹치는 쓴 눈물에 짓이겨도 주님 뒤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참 좋은 당신이다. 살아가는 동안의 큰 아픔과 상처는 주님께 바치는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생각 사록 ‘참 소중한 당신’으로 겹쳐져 주님 보시기에도 그러하리라. 지난달, 가톨릭 문인회 25주년 특별전 잔치에 문학관으로 초청을 하였더니 그 날 아침 딸이 아파서 손녀를 거두어야 하는 어려움에도 걸음마 떼는 손녀를 안고 힘겹게 오시는, 사소한 약속 앞에 더 아름답고 애뜻한 선배. 자신 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심지心地는 거룩한 힘이다.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진리 속에 자유로운 영혼으로 겸손하기를 실천하는 깨끗한 선배. 영육으로 경이로운 그 붓글씨의 오롯한 마음을 획 따라 닦고자 가슴에 그 구절을 새롭게

재운다.

우주의 심오한 관계에서 씨앗은 흙을 만나 싹을 틔우고 고기는 물을 만나 숨을 쉬고 사람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고, 믿는 사람들은 신앙심으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어 영혼의 연을 맺는다지 않는가. 나는 선배에게서 고통과 결핍 속에서 하느님의 섭리와 기쁨을 키우는 마음을 배웠다. 묵주기도를 바칠 때는 두 손을 머리 위로 뻗쳐 정성을 다하고 성가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를 즐겨 부르는 당신을 기억한다. 이 생명을 드려 감사하고, 이 삶을 드려 선한 일을 하고, 이 음성으로 찬미를 하고, 이 재능으로 봉사를 하고 이 마음을 드려 끝까지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게하소서라는.

우리 생명의 샘이요. 방패요, 바위이신 참 좋은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참 좋은 당신이 많다. ‘서로 사랑하여라.’ 한 말씀으로 묵묵히 그 길을 쉬지 않고 가는 당신. 의지에 변함없이 늘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고마운 당신. 만난 지 너무 오래라고 포옹하자는 당신, 언제나 반갑다고 웃음으로 손 내밀어주는 당신, 항상 주님 곁에 밝게 서서 기다려 다독이며 걱정해주고 기도 바치며 황혼과 저녁별을 기다리는 향기로운 당신. 주님과 함께 담담하게 살다가 미련 없이 언제라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꿈꾸는 ‘참 좋은 당신’ 오늘은 이 땅 위의 모두에게 다가가 속삭이고픈, 전하고픈 말이다.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 편 :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 solace@cathms.or.kr
문 의 : 055)249-7002~3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 samok1@cathms.or.kr
문 의 : 055)242-6772

송구영신 피정(1박 2일)

일 시 : 12. 31.(월) 16:00~2019. 1. 1.(화) 10: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내 용 : 피정 및 송년미사, 신년 대축일미사
신 청 : 농협 351-0006-1186-53, 재)마산
교구, 선착순 마감
준비물 : 세면도구(수건 포함), 개인컵, 미사준비
문 의 :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2

삼계본당 제8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 허성윤(갈리스도)
사목부회장(남성) : 김진수(리차드)
사목부회장(여성) : 김병숙(가타리나)
총무분과장 : 주 성(알렉산델)
재경분과장 : 옥현철(빈첸시오)
전례분과장 : 김수미(크리스티나)
선교분과장 : 김은희(막달레나)
교육홍보분과장 : 윤선희(드보라)
구역분과장 : 김성아(비비안나)
사회복지분과장 : 김정애(로사)
청소년분과장 : 박기호(요한)
시설관리분과장 : 이동해(베드로)
가정사목분과장 : 구순한(플로라)



교구장 동정

일 정 : 12. 4.(화)
장 소 : CBCK
내 용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정기총회

일 정 : 12. 8.(토)
장 소 : 교구청
내 용 : 가톨릭문학 신인상 수상식

교 구

■ **구역분과위원장 모임**

일 시 : 마산지구 - 12. 5.(수) 14:00
장 소 : 양덕동성당
일 시 : 창원지구 - 12. 6.(목) 14:00
장 소 : 반송성당
문 의 : 사목국 055)249-7021~3

■ **가나혼인강좌 강사진 워크숍**

일 시 : 12. 8.(토)~9.(주일) 1박 2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가정사목국 055)249-7028~9

기 관 · 단 체

■ **가톨릭문학 신인상 시상식 및 가톨릭 문인회 총회, 문인회지 발간 기념 감사미사**

일 시 : 12. 8.(토) 10:00/ 장 소 : 교구청 1층 강당
문 의 : 문인회장 010-9217-0233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12월 봉사자 월례회**

일 시 : 12. 10.(월) 14:00/ 장 소 : 장평성당
대 상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문 의 : 담당자 010-3903-8234

■ **향심기도 피정(중독과 하느님의 치료)**

일 시 : 12. 7.(금) 10:00~9.(주일) 15:00 2박 3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참배: 17만 원/ 신 청 : 12. 3.(월)까지
문 의 :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2

■ **대림 일일 피정**

일 시 : 12. 15.(토) 10:00~16:00
장 소 : 월남동성당
강 사 : 유영봉 야고보 몬시뇰
내 용 : 주님안에서 참행복과 내적평화
대 상 : 교구 전신자(미사있음, 점심제공)
문 의 : 교구 웰다잉 교육회 010-5883-4413

■ **193차 ME 주말 안내(2박 3일)**

일 시 : 2019. 1. 11.(금) 19:00~13.(주일) 17: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김주호(요아킴)·조정선(안나) 부부
010-7744-1551, 010-2736-3496
○ 194차 ME 주말 : 2019. 2. 22.(금)~24.(주일)
○ 195차 ME 주말 : 2019. 4. 26.(금)~28.(주일)

■ **도박을 끊고 싶으십니까?**

매주 정기적인 모임으로 도박질병을 치료하고 도박이 없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익명의 모임입니다.
한국단도박모임 : www.dandobak.or.kr
장 소 : 월남동성당, 매 주일 17:00
문 의 : 담당자 010-9992-3443

기 타

■ **2019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 11. 12.(월)~2019. 2. 13.(수) (우편신청가능)**

대 상 :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내 용 : 성서, 교의, 전례 등 26과목
문 의 : 02)745-8339
홈페이지 :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 **2박 3일 무료 치유 피정**

일 시 : 12. 7.(금) 18:00~9.(주일) 15:00
장 소 :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무료숙식)

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 **2월 14일 출발**
파티마 스페인 순례 11일 (375만원)

■ **2월 19일 이스라엘 요르단**
대한항공 11일 (395만원)
※ 공동경비포함
분도여행사 ☎ 02)852-8525

마 산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진해시니어클럽 자연 숲**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csc.or.kr
055)541-0126 055)605-6297

◆ 밝은세상의 시작은 안경이야기에서...

안 경 이 야 기 마산 합성점

하드 RGP 콘택트, 누진 다초점 전문점
마산회원구 3·15대로 747-1 (합성동)
마산 시외버스 맞은편
이기웅 로마노, 이태란 요안나
055)295-0888

 쥬니어 음악학원
(피아노·바이올린)

유치부/ 초·중·고등부 / 일반부 입시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스카이엘빌 파크 2층
055)263-9320, 010-2559-3551
원장 최은숙 가타리나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출 발 : 마산역 김안과 앞 11:40
문 의 : 043)213-9103, 010-2373-0125

■ **해남이 피정(왜관 수도원에서의 송구영신)**
일 시 : 12. 29.(토) 16:30~31.(월) 13:30
장 소 : 성 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
참가비 : 19만 원,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준비물 : 수건, 개인컵, 세면도구
문 의 : 054)971-0722, 010-9877-4739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성모유치원 교사 모집**
기 간 : 12. 22.(토)까지
대 상 :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
문 의 : +62 811.1080.543(카톡연결바람)

■ **제7기 장례지도사 교육생 모집**
신 청 : 12. 30.(주일) 마감, 대전가톨릭대학교(dcatholic.ac.kr)
장 소 : 정하상교육회관
문 의 : 정하상교육회관 010-6788-1540

■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올레길·오름 트레킹, 미사(성무일도), 나눔
* 아래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예약가능
일 정 : 12. 30.~2019. 1. 1.(눈꽃산행) / 2019. 1. 4.~6. / 1. 10.~13.(눈꽃산행) / 2019. 1. 19.~21. / 1. 26.~29.(눈꽃산행) / 2019. 2. 16.~18.(눈꽃산행)
문 의 : 02)773-1463, 064)756-6009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 올레길, 미사, 기도, 강의**
일 시 : 12. 30.~2019. 1. 2. / 2019. 1. 11.~13. / 2019. 1. 16.~18. /

2019. 1. 21.~24. / 2019. 1. 28.~30. / 2019. 2. 10.~12.
대 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 의 : 제주 성 이시돌 064)796-9181

■ **양업고등학교 행복한 겨울 캠프**
일 시 : 2019. 1. 4.(금)~6.(주일) 2박 3일
장 소 : 양업고등학교
대 상 : 중 1~2학년 참가비 : 15만 원
접 수 : 양업고 홈페이지(12. 18.부터 선착순)
문 의 : 양업고등학교 043)260-5078

■ **제25차 해외선교사교육(2019년)**
일 정 : 2019. 1. 7.(월)~2. 1.(금)
대 상 : 해외선교를 준비하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양성담당자
주 관 : 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
주 최 : 성골로반외방선교회
문 의 : 02)953-0613, 010-5397-8420

■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권민자 수녀)**
1박2일 : 2019. 2. 9.(토)~10.(주일) / 3. 16.(토)~17.(주일)
3박4일 : 12. 6.(목)~9.(주일) / 2019. 1. 5.(토)~8.(화)
8박9일 : 12. 26.(수)~2019. 1. 3.(목) / 2. 12.(화)~20.(수)
40일 : 12. 12.(수)~2019. 1. 20.(주일) / 4. 23.(화)~6. 1.(토)
장 소 :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문 의 : 010-4906-5722, 031)953-6932

■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 발 : 매월 1회, 4박 5일 / 비 용 : 63만 원
지 역 : 가고시마, 나가사키, 야마구치
주 관 : 가고시마교구 / 지도 : 송진욱 신부
문 의 : 담당자 010-3005-9028

◆ 교구청 직원 모집 ◆

미디어국에서 임시직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모 집 : 임시직 1명(2019. 1. 2.~2020. 4. 29.)
특이사항 : 미디어국 업무 보조, 컴퓨터 능통자(포토샵, 일러스트 사용 가능자)

제 출 :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 추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접 수 : 12. 20.(목)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무처 (우 51727)

문 의 : 사무처 055)249-7019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톨릭여성회관 한마음의 집 조리사 채용 공고

모집인원 : 1명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가족관계 증명서, 조리사 자격증 각 1통

접 수 : 12. 7.(금)까지
면 접 : 추후 개별 통보
문 의 : 가톨릭여성회관 055)255-5080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 례	문 의
교 구	12. 3.(월) 19:00	월남동성당	치유세미나 그 마무리	이동진 신부(안셀모)	이동진 신부(안셀모)	010-5072-5612
창원지구	12. 3.(월) 19:00	반 송 성 당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강영구 신부(루치오)	강영구 신부(루치오)	010-4553-7425
진해지역	12. 10.(월) 19:00	중앙동성당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황인숙(마리아, 서울대교구)	정철현 신부(바오로)	010-7566-9441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한국외방선교수녀회	12. 8.(토) 14:00 / 12. 9.(주일) 10:00, 14:00	부산 본원 및 원하는 장소	010-9319-1690

 라파엘여행사 ◆ 이스라엘 9일 2/2 (375만원) ◆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3/13 (289만원) ◆ 나가사키 4일 2/27, 3/19 (94만 9천원) ◆ 다낭 5일 2/24, 3/10 (12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 02)778-8565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서면역 9번 유원빌딩 1710호 성가정결혼 051)907-9525 김실비아 010-5514-3294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함초 소금 200g 1만 원 신 청 : 055)391-1205	 새로운 눈이 열리는 통영예일안과 ◆ 백내장 클리닉 ◆ 안성형 및 사시 클리닉 통영시 중앙로 240 통영메디칼 빌딩 2층 외래진료 / 6층 수술센터 www.yeileyeyes.co.kr 원장 : 강태중 프란치스코 055)644-5419, 646-7968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 월~금 10:00~17:00 주 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전 화 : 055)293-5605
---	---	---	---



엘리야와 세례자 요한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지니고 주님보다 먼저 올 것이다.”(루카 1,17) 영과 능력, 이 두 개념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과 능력 없이 결코 있을 수 없고, 능력도 영 없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룩한 엘리야는 이 두 가지, 큰 능력과 은총을 지녔기 때문에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지니고’라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백성의 마음을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서게 하는 능력, 단념하고 인내하는 능력, 예언하는 영을 지녔습니다. 엘리야도, 요한도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요한은 메뚜기에게서 양식을 얻었고 육체적 향락에 빠지게 되는 모든 유혹을 짓밟으며, 간소한 생활을 더 좋아했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물리쳤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호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요한은 헤로데 왕의 호의를 멸시했습니다. 엘리야는 요르단강물을 갈라지게 했고, 요한은 요르단강물을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소로 변화시켰습니다. 요한은 주님과 함께 지상에 머물렀으며, 엘리야는 영광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첫째 재림의 선구자, 엘리야는 둘째 재림의 선구자입니다. 엘리야는 삼 년이 지난 뒤 마른 땅을 많은 비로 적셔 주었고, 요한은 삼 년 뒤에 우리 마음의 땅을 믿음의 이슬로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대는 이삼 년이 무슨 말인지 묻는군요. 그분은 “보시다시피 내가 삼 년째 여기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아보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신비로운 숫자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조들의 시기입니다. …둘째 해는 모세와 나머지 예언자들의 시기이며, 셋째 해는 주님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자, 주님의 은혜로운 해이며 보복의 날이다.”(루카 4,16-19)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밭을 가꾼 집주인도 한 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추수할 일꾼들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처음에 종들을 보냈고, 그다음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으며, 세 번째에 자기 아들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 암브로시우스 『루카복음 주해』 1,36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으로 양식과 힘을 얻은 암브로시우스는, 집주인이 이 방 저 방 자유자재로 건너다니듯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넘나들면서 두 성경에서 얻은 생각을 깊이 있게 해석한 주석가다. 주교가 되면서 그는 배워야 할 자신이 가르치게 되었다고 탄식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신자들과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먹고 마셨다. 그분의 성경 주해를 읽어 보면, 성경의 세계를 종횡무진 다니면서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열매들을 많이 따다 먹이는 부모님과 같은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분은 구약과 신약을 어머니의 두 젖가슴에 비유한다. 구약에는 회개의 약이, 신약에는 기쁨의 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젖을 먼저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직 신앙이 약한 사람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성경 말씀도 먹는 순서가 있다는 말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훗날 『고백록』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자신을 가르치던 때를 기억하며, 그분이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면 어둠던 것이 늘 환해지는 체험을 했다고 고백한다. 암브로시우스는 구약성경에 관한 주해서를 많이 썼지만, 신약성경 주해서는 『루카복음 주해』가 유일하다. 이 책에서 암브로시우스는 구약과 신약의 흐름을 재미있고 신비롭게 연관 지으며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크나큰 사랑을 강조한다. 세례자 요한에 관하여 해석하며, 요한을 엘리야 예언자와 비교한다. 두 분이 같은 영과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으로 입증하였고, 두 분의 공통점을 나열한다. 목숨을 걸고 하느님 말씀을 전한 두 분 사이의 교감이 암브로시우스의 언어로 아름답게 전개된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하신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구약의 엘리야나 죽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대답한다. 두 분 다 주님의 정신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이다. 요한은 주님과 같은 시대에 사셨고, 엘리야는 타보르 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때 함께 계셨던 분이다. 주님의 영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충만하여 삶 안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길 기도드린다.